

中·獨은 통일을 후대로 떠넘기지 않았다

태평로



안용현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 “통일하지 말자, 미래 세대에 맡기자”고 하더니 23일에도 “두 국가로 살자”고 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전 통일장관도 지난 5월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했었다. 그럴 문제인가. ‘후대로 넘기자’는 말로 박수받은 사람이 덩샤오핑이다. 그는 1978년 방일 때 중·일 간 최대 난제였던 다이오이드(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대답이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것이다. 이 문제는 후대로 넘기자”였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중국에 한국 민주당이 있었으면 ‘다오위다오 포기 선언’ ‘토착 왜구’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일제의 난징 대학살로 죽은 중국인만 30만명이다. 덩은 난징 학살 추모관을 지으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추모비도 직접 썼다. 그럼에도 감정을 누르고 중·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일본은 철강 등에 대규모 투자를 응답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밑거름이 됐다.

덩은 외교나 내치에서 현실을 중시했고 유연했다. 입장을 끝까지 바꾸지 않은 단 하나가 중국 통일 문제였다.

1972년 닉슨 방중으로 물꼬를 튼 미·중 관계는 대만 문제에 걸려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덩은 격노했고 양국 수교는 엮어질 뻔했다. 덩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과 대만 주둔 미군 철수를 약속받으려서 수교를 승인했다. 일본과 외교 갈등은 미룰 수 있어도 조국 통일을 후대로 넘기는 것은 역사와 민족에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중국은 외국과 수교하거나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고

中 수교, 정상회담 때마다 ‘대만은 중국 일부’ 꼭 적어 서독도 ‘하나의 독일 민족’ ‘임종석에 기대한다’ 했던 北

었다. 예외는 없다. 어느 순간 양안(중국·대만)이 통일한다고 해도 국제법적 논란은 없을 것이다.

냉전 시절 동독은 동유럽의 선진국이였다. 소련 후원이 든든한 동독 붕괴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동독의 ‘두 국가’ 주장이 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서독은 ‘하나의 독일 민족’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내독관계부(통일부 역)와 전독문제연구소(통일연구원 역)가 통일 당위성 등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설교했다. 서독이 동독의 ‘두 국가’에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면 불속 찾아온 ‘별의

순간’을 낚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도, 독일도 통일만큼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았다.

임 전 실장 등은 ‘전쟁 위기’를 말하며 ‘평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5년 월남 패망이 임박하자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달려갔다. “우리(북한)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 통일”이라며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에선 주한 미군 철수 논란이 뜨거웠다. 대한민국의 위기였고 김씨 일가의 기회였다. 그때 진보 세력은 ‘평화가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에 동조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도,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소문이 돌았을 때도 전쟁 지수가 치솟았다. 그때도 주사파 등은 통일을 외쳤다.

김정은이 ‘통일 거부’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내 일부가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했으면 그 진정성과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통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평생 통일을 주장하던 세력들이 지렁이 나뉘는 것처럼 ‘통일 미루기’에 나섰다. 4년 전 북한 선전 도구는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통일장관 후보자), 임종석(외교안보특보)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고 했다. 북 기대에 정말 부응이라도 하려는 건가.

김준의 맛과 섬 [208]

광양 망덕포구 전어회

어느 해인가, 추석을 앞두고 망덕포구에서 전어잡이 배를 탔다. 해가 뜨기 두어 시간 전이었다. 작은 그물 몇 폭 준비한 아버지와 아들은 10여 분 달려 배알도 인근에 그물을 내렸다. 잠시 후 금오산 너머로 어둠이 깔리면서 하늘과 산과 바다 경계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물을 올리기를 시작했다. 전어가 그렇게 쉽게 잡힐까 싶었는데, 어명에 은빛 전어가 몸통을 흔들며 준 재감을 보이며 물 밖으로 나왔다. 주위를 살펴보니 여러 척이 조업 중이었다.

망덕 포구는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 있는 포구다. 전라북도 진안 데미셀에서 발원한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곳이다. 영양염류가 풍부해 어느 곳보다 일찍 짙 양식이 시작되었다. 한때 모래갯벌과 펄 갯벌과 혼성 갯벌이 공존하

는 우리나라 최고 허구 갯벌이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광양과 하동에 제철소 등 공업단지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전어 어장으로 명성이 높다. 다행스럽게 강과 바다로 통하는 물길이 가로막히지 않아서다. 우리나라에서 한강과 더불어 강과 바다가 통하는 하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드문 곳이다. ‘자산어보’에 전어는 ‘흑산에 간혹 나오지만, 육지 것만 못하다’고 기록했다. 그 전어가 흑산 망덕과 같이 강 하구에서 잡힌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여름에서 가을까지 망덕리 어민들은 작은 그물 몇 폭씩 준비해 전어를 잡는다. 배에 최신 시설을 갖추고 경쟁하듯 대형 그물을 둘러쳐서 잡는 것이 아니다. 아내와 남편, 아들과 아버지가 작은 불빛에 의지해 그물 몇 폭



을 내리고 올리는 것을 반복한다. 금오산 위로 해가 올라 어둠이 완전히 깔리면 그물을 걷어 포구로 돌아온다. 살아있는 전어는 바로 배 위에서 활어로 판매하고, 죽은 것은 구이용이다. 배에서 내리려는데 아들이 잠깐 기다려 보라더니 전어 몇 마리를 꺼내 손질하더니 쓱쓱 썰어서 맛을 보라며 내놓았다. 조장과 전어, 그리고 소주 한 잔. 그전에도 양으로도 잊지 못할 맛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제 기온 상승으로 가을보다 여름에 전어가 많이 잡히고, 맛있는 시기도 바뀔 것 같다. 이번 추석 때 어김없이 전어를 싣다. 여전히 맛이 좋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에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약 1조1000억원을 배상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거대 플랫폼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수료 갑질을 계속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명목으로 최대 26%의 수수료를 챙긴다. 앱 개발사 입장에서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30%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밑보여서 퇴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100원 팔아 30원을 수수료로 떼이면 게임·웹툰·음악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도 없다. 매출의 30% 이상 수익으로 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사실상 수익 대부분을 구글과 애플에 바치는 셈이다. 이런 구조의 피해자는 결국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2년 전 구글과 애플이 게임 이외 다른 콘텐츠 앱에도 최대 30%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자 당시 멜론 등의 음악 앱

들은 값을 10~15%가량 올렸다.

이렇게 높은 수수료 등을 부과하며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인데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5000억~6000억원은 냈어야 한다는 추산도 있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보다 더 돈을 벌면서 세금 납부 규모는 네이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코리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에 법인세 2006억원을 냈다. 역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다. 반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애플에 대한 130억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애플은 약 210억유로를 물어야 한다. 구글은 반독점 위반으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거의 1년째 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심한 정치에 기업과 소비자만 골병들고 있다.

민주화 선배 장기표에 조문·애도 한마디 없는 민주당

민주화 운동가이자 재야의 상징인 장기표씨의 별세에 각계의 애도와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아무런 논평이나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장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부영·이재오·유인태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학규 전 대표 등 여야와 각계 원로들이 두루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훈장을 추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깊이 존경했던 대신 배의 안식을 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화를 보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원로의 죽음은 정파를 떠나 애도하는 것이 관례다. 더구나 장씨는 민주화 운동으로 9년간 옥고를 치른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산증인이자 대선배다. 말년에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지만 특정 정영 인사로 보긴 어렵다. 그는 총선 때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만들어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운동에 앞장섰다. 민주당이 그의 죽음을 집단 외면하는 것은 대선 때 장씨가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비리 방탄 대선 약속한 별채도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비판을 계속했다. 이 대표가 장씨 조문을 꺼리니 다른 의원들도 눈치 보며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에 쓴소리를 던졌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수시로 비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유독 이 대표와 민주당만 그가 숨을 거둔 뒤까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 어떻게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

장씨가 지난 4월 여야에 ‘특권 폐지 동창’ 여부를 물었을 때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별채도 특권 포기야 세비 삭감 제안도 거부했다. 이제 장씨가 생전에 던진 특권 폐지에 대해하더라도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불편해도 대통령과 與대표는 자주 만나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윤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공식 만찬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다. 한동훈 체제 지도부와는 만찬은 당초 8월 30일로 계획했지만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이번엔 한 대표의 의정 갈등 같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獨對)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이번 만찬은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독대가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체고 방문 기간 동안 독대 요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독대가 성사됐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고 여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고 방문 성과 공유와 정기국회에서의 당정 협력에 무게를 둔 반면,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김 여사 문제를 풀어

볼 생각이었던 것 같다. 만찬을 두고 동상이몽을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만찬 환영사에서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고 방문 성과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했고, 여당 지도부는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의 성과나 합의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수시로 만나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토론을 해서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엔 독대를 두고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것 자체가 여권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불편해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한다. 불편하다고 서로 답을 쌓고 소통을 거부한다면 그건 대통령실과 여권의 실 패는 물론 국가적인 불행은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떠올린다

“한국 의사들, 간호사들 [최고]더이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고매한 정신과 아름다운 감성〉 먼저 〈대결〉 대신 〈협력〉 방안 찾자



▲ 피난민 장기려 박사가 부산에 차린 작은 병원이 오늘날 〈고신대병원〉으로 발전했다. 창 박사는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었다. 1977년 박정희 정권이 직장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6.25 전후 서울대 의대 농대 공대원 유독 미국 미네소타대 출신 교수진이 많았다. 전쟁 중에도 전후 복구를 준비한 이승만 대통령이 우수한 인재를 뽑아 미네소타대학으로 유학을 보낸 것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의 비약적 발전에는 미네소타대학의 헌신적 지원이 있었다. © 연합뉴스

어떻게 풀 것인가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엔 비(非) 전문가로서 선봉리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식인으로서 한 가지만은 강조한다.

1885년 4월 10일 (제증원(濟衆院))이 한국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으로 선 것은, 미국 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과 조선 정부의 [대결] 아닌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그 후 서양 의료계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양관→일정기→대한민국〉이 한 역할 외에, 민간으로서 할 몫을 톡톡히 했다. 의료 교육, 의료인 양성과 배출, 병원 운영에서 특히!

한 의사의 삶과 죽음

6.25 전쟁 때는 민간 의료인들의 상황이 더욱 처절해졌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의 사연은 눈물겹고 비통하고 감동적이다.

그는 전쟁 중 이동하면서 부인을 놓쳤다. 아들만 데리고 남하했다. 부산 영도(影島)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무료병원을 열었다. 평생을 [기독교 정신 + 의료봉사 + 아내 그리움]

으로 살았다. 제자들이 사모님과 편법으로라도 만나게 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이산가족이 하나인가. 어찌 혼자서 그런 특례를 바라겠는가?” 그는 1995년 눈을 감았다. 2004년 아내의 편지가 울 줄도 모른 채, 아내는 적었다.

“그러면 당신에게, 기도 속에서 늘 당신을 만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전 그대로 했습니다.” 부인은 그해 부근 뒤를 따라갔다.

의료는 무엇인가, 근본적 질문

오늘의 [의·정] 갈등과 관련해 그 어떤 [정치공학적 타결책(妥結策)]을 내놓기보다는, 갑자기 의료인 장기려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대기)를 상기하는 충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모든 유의미한 의료적 결단 원형에는 [기독교 방편] 이전에 〈고매한 영성〉과 〈아름다운 감성〉이 먼저 터 잡고 있어야만 순서라고 느낄 따름이다.

장기려 박사와 그 부인이 언제 [정치적 해법] 같은걸, 말이나 했던가? 노(no). 그들은 (의료인의 소명(召命)+히포크

라테스의 선서+지순한 사랑)을 전인적(全人的)으로 살았을 뿐이다. 이걸 객관화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할지 모른다.

※ 의료 먼저냐, 정부 먼저냐, 갈등하는 건 부질없다.
※ 정부가 태어나기 전에 민간 의료계가 있었다. 이걸 존중해야 한다.
※ 의료에 대한 국가 지배, 관료 지배는 안 된다. 권위주의적 통제도, 설익은 좌파 통제도 금물이다.

한국 의료진, 대단하다

최근 한 기업인이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는 감탄했다. “한국 의사들, 간호사들 [최고]더이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최고]들의 자발성과 자긍심이 존중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장기려 박사님 내외분, 여기 이곳에 임하소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지도하고 기도해 주소서!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4년 9월 24일 게재 되었습니다.

